JAEGER-LECOULTRE

소개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랙 래커로 재해석한 칼리버

주요 특징:

- **탁월한 워치메이킹:** 12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이로투르비옹, 16 초마다 360° 회전하는 내부 케이지, 1 분에 1 번 회전하는 페리페럴 캐리지
- **혁신적인 더블 휠 메커니즘의 조절 가능한 버클:** 46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폴딩 버클, 무게 약 30g, 0.5mm 길이 조절 가능
-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18K 핑크 골드 소재 플레이트와 브릿지 위 레이저 컷팅으로 만들어낸 200 개의 홈, 시계 하나당 한 명의 장인이 래커칠 담당 (매뉴팩처 내 3 명의 장인만 숙달한 기술)

2023 년 첫선을 보인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예거 르쿨트르의 상징적인 다축 투르비옹의 탁월한 기술력과 정교하고 세련된 장식이 조화를 이루는 히브리스 컬렉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2025 년, 예거 르쿨트르는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랙 핸드 래커를 양쪽 다이얼에 적용하여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를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독창적인 기술력: 두 개의 타임존과 다축 투르비옹

1931 년, 리베르소는 인도에서 폴로 경기의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이후 남성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버전들이 등장하면서 , 리베르소는 스포츠 워치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손목시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90 년대부터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기 시작했고 각 다이얼에서 서로 다른 타임존을 표시할 수 있는 듀오페이스 무브먼트(1994 년에 특허 획득)를 제작했습니다.

칼리버 179 는 듀오페이스 메커니즘과 함께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메종의 시그니처 다축 투르비옹인 자이로투르비용의 네 번째 버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티타늄 내부 케이지와 볼 베어링에 설치된 페리페럴 캐리지는 각기 다른 속도로 수직 회전합니다. 내부 투르비옹 케이지는 16 초마다 360 도 회전하고, 페리페럴 캐리지는 1 분에 한 번 회전합니다.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과 독특한 이중 앵커 형태의 자이로랩 밸런스 '휠'은 예거 르쿨트르가 추구하는 정확성과 기계적 효율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의 브릿지가 아닌 볼 베어링 링으로 지지되는 플라잉 자이로투르비용은 마치 리베르소의 앞면 다이얼과 뒷면 다이얼 사이의 공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새로운 컬러 팔레트: 메종 장인들이 선보이는 기술력의 정수

아르데코 시대의 모노크롬 팔레트에서 영감을 받은 새 블랙과 그레이 컬러 팔레트는 18K 핑크 골드 케이스, 브릿지, 장식 플레이트와 풍부한 대비를 이룹니다. 듀오페이스 무브먼트를 갖춘 리베르소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돋보입니다.

앞면 다이얼에서는 오리지널 리베르소 디자인 요소인 아르데코 코드의 기하학적 패턴을 연상시킵니다. 장식 플레이트와 브릿지의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격자무늬가 진귀한 메탈 케이스의 컬러와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이 선들은 래커 작업을 위해 핑크 골드 칼리버 플레이트에 레이저로 파낸 200 개의 미세한 홈(rib)입니다. 풍부한 컬러와 깊이감을 얻기 위해 메탈 홈 사이에 블랙과 그레이 래커를 수작업으로 도포하고, 폴리싱 처리하여 표면에 광택을 더해 선 디테일과 수평을 이루도록 완성하였습니다.

뒷면 다이얼의 스켈레톤 처리된 아워 미닛 링과 이를 지지하는 브릿지는 블랙 래커로 마감되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양한 무브먼트 부품이 지닌 따뜻한 톤 및 마이크로 블라스팅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뒷면 다이얼 장식은 수작업한 챔퍼링과 래커링, 레이저 스켈레톤 구조로 기술과 전통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이는 워치메이킹 예술과 과학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면서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이콘: 아르데코 디자인의 순수한 표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선적인 기하학적 구조와 조화로운 비율의 리베르소 케이스는 특별한 슬라이드 및 회전형 메커니즘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크래들 내부에는 블랙 래커 디스크에서 뻗어나가는 선레이

패턴이 특징입니다. 다이얼 위아래의 시그니처 가드룬으로 강조되는 강렬한 아르데코 코드는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에 장착된 두 다이얼의 정교한 장식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382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칼리버 179 는 매우 복잡하지만, 케이스 두께는 단 13.63mm 에 불과하여 우아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18K 핑크 골드로 제작된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의 특허를 획득한 폴딩 버클은 약 30g 의 무게를 지니며, 더블 휠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0.5mm 까지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180 가지 기술을 한데 모아 탄생시킨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예술과 기계 애호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최고의 장인 정신을 가진 워치메이커와 장인 간의 놀라운 협업을 통해 탄생한 타임피스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51.2 x 31mm, 두께 13.6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9

기능: 양면 다이얼의 시, 분, 후면 다이얼에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세컨드 타임존,

자이로투르비옹(양면 다이얼에서 모두 확인 가능)

파워 리저브: 40 시간

앞면 다이얼: 블랙 및 그레이 래커

뒷면 다이얼: 스켈레톤 처리, 블랙 래커

방수: 30m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작은 스케일 안감, 조절 가능한 18K 핑크 골드(750/1000)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39424E3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소개

히브리스는 그리스어로 '넘치는 열정'을 뜻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대담함과 창의성, 그리고 탁월함으로 만드는 장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워치메이커의 열망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혁신 추구를 바탕으로, 2003 년에는 가장 복잡하고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장착된 히브리스 메카니카 컬렉션이 등장했으며, 현재까지 54 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확장한 메종은 2014 년, 하이 워치메이킹과 예술적 정수를 결합한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컬렉션을 2014 년에 선보였습니다. 히브리스 메카니카의 뛰어난 15 개 칼리버에 생명을 불어넣은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는 기술적 완성도를 예술 형태로 선보이며,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정교한 기술을 통해 각 타임피스에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발명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매뉴팩처는 기요셰, 마이크로 페인팅, 에나멜링, 인그레이빙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을 정교한 컴플리케이션과 융합해 디자인과 매커니즘, 예술성이 어우러진 장인 정신을 투영합니다.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는 예거 르쿨트르의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컬렉션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TM 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